

# 채림 “솔로 육아, 경험자 아니면 위로가 썩 와닿지 않아”



배우 채림.

3년만에 JTBC 예능 ‘용감한 솔로 육아’로 방송 복귀  
혼자 아이 키우게 된 스타들 모임 결성 육아 팁 등 공유  
조윤희·김현숙·김나영 합류...MC는 김구라가 맡아

“오랜 기간 고민했어요. 하지만 많은 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배우 채림(42)이 3년 만에 네 살 아들과 함께 육아 예능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JTBC는 지난 9일 첫 방송한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를 통해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스타들이 모임을 결성해 각종 육아 팁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는 리얼리티 예능이다. 채림 외에도 배우 조윤희(39), 김현숙(43), 방송인 김나영(40)이 각각 사랑스러운 2세들과 합류했다. MC는 김구라가 맡았다. 채림은 “(싱글맘들에게도) 때로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이걸 경험자가 아니면 위로가 썩 와닿지 않는다”며 “우리 입장을 보면서 많은 분이 공감하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출연자들의 VCR을 봐도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라 날 것 그대로의 ‘솔로 육아’를 보여주는 것 같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나머지 세 분의 고됨이 너무 잘 보여서 나도 모르게, 주눅때게 자주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용감한 솔로 육아’에 출연하는 김구라·채림·조윤희·김현숙·김나영 (왼쪽부터)

아울러 “육아 고충은 어느 가정이나 있을 것이다. 가정의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우리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 편

견과 틀이 조금 깨졌으면 한다”며 “우리를 너무 안쓰럽게 볼 필요 없이 ‘혼자 키우니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 정도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조윤희는 “내 사생활과 아이를 공개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커서 3개월 가량 고민하다 출연했다”며 “딸 로아를 보면 참 부럽다.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활발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다가간다. 이런 사랑스럽고 밝은 모습을 많은 분께서 예뻐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일곱 살 아들과 출연하는 김현숙은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해서”라고 웃으며 운을 뚫었다. 이어 “아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이가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었는데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 또 내가 원지 오래돼서 TV로 만나고 싶다는 팬들의 의견이 있어 출연했다”고 말했다. 두 아이와 함께할 김나영은 “최근 혼자 육아하는 분이 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에만 익숙하다. 그리고 그 가족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1년 중 360일은 힘들지만 5일 정도, 짧은 순간에 큰 힘을 얻어 나머지를 견뎌낸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나는 지금은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솔로 육아 경험이 있어서, 먼저 겪은 선배로서 이분들께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MC로 출연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예인들도 아이 아빠가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육아 스킬이 떨어져서 힘든 게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희망을 품고 나오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이건 진짜다... 진지함으로 무장한 ‘골 때리는 그녀들’

SBS 예능...멤버들 열성적 활약 시청률 ↑  
모델·‘국대 아내’ 등 선수들 면면도 화제



‘골 때리는 그녀들’ 한 장면.

연신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 콧물까지 쏙 빼니 스포츠 예능의 탈을 쓴 토크쇼나 관찰 예능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SBS TV 축구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이 제목 그대로 정직하게 골대라도 때려보고자 기를 쓰는 멤버들의 활약에 힘입어 시청률도 화제성도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설 연휴 2부작 특집으로 선보였던 ‘골 때리는 그녀들’은 당시 호평받아 최근 정규 편성됐고, 초반부터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최근에도 7~8%대(닐슨코리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파일럿 방송 때까지만 해도 저 멤버들을 일회성도 아닌 정규 프로그램에 계속 묶어둘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지만 기우였다. 파일럿 때 골 때리는 맛을 한 번 봤던 그녀들은 본업도 미뤄두고 축구에 ‘올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번 각본을 미리 만들어도 이렇게 흘러가기 어려운 드라마틱한 전개가 몰입감을 더한다. 최근 승부차기까지 가서 마지막 주자 남현희가 국대 패밀리에 역전승을 안겨준 장면은 그야말로 드라마였다. FC 개벤저스가 무패행진을 하던 FC 불

나방을 꺾은 것도 그랬다. 선수를 면면도 화제다. 특히 눈길을 끄는 팀은 모델들이 모인 FC 구척장신이다. ‘툼모텔’ 한혜진을 필두로 이현이, 송해나, 아이린, 김진경, 차수민까지 이들은 한자리에, 그것도 축구를 고리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워낙 특별한 일이다. 물론 ‘선수’로서만 생각해도 이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발톱이 빠져도 축구밖에 모르는 리더 한혜진, 파일럿 때와 비교해 장족의 발전을 보여준 이현이, 압박 수비의 정석 송해나, 동체 시

력(?)의 소유자 아이린, 막강한 킥의 김진경, 모델 스케줄보다 축구 연습이 더 많은 차수민까지 모두 프로 선수 못지않게 진지하다. FC 국대 패밀리로 조명받기 좋은 팀이다. 늘 ‘국대대표의 아내’로만 불리며 이따금 관찰 예능에서 볼 수 있었던 이들이 직접 운동선수로 뛰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 축구 명문가 차범근 패밀리의 며느리 한채아부터 이천수의 아내 심하은, 정대세의 아내 명서현, 이호의 아내 양은지와 스스로 국대 출신인 팬싱의 남현희,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의 박승희의 합은 기대 이상이다. 이 밖에도 개구멍들이 뚫린 FC 개벤저스, ‘불타는 청춘’ 멤버들 위주로 구성된 FC 불나방, 몸 잘 쓰는 배우들을 조합한 FC 액션스타, 외국인들을 모아놓은 FC 월드 클라스가 리그 전과 토너먼트전에 합류해 활약하고 있어 주목된다. 거기에 김병지, 황선홍, 이천수, 최진철, 최용수, 이영표 등 2002년 한일 축구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감독으로 나섰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11일 “스포츠는 남성 위주라고 생각하지만 여성과 연결한 점도 인상적이고, 관련하는 대리만족보다 직접 참여를 택한 것도 좋은 수였다고 본다”며 “최근 스포츠 예능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진지함을 추구해 오히려 차별화가 됐다. 또 팀별 컬러가 다양한 것도 흥미 포인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서준 日서 한류스타 ‘우뚱’ 한국 드라마 DVD 판매 출연 5편 20위권

배우 박서준(32·사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사랑받으며 완연한 한류스타로 우뚱 섰다. 지난 8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에 따르면 최근 일본 아마존 사이트의 한국 드라마 DVD 판매 실시간 랭킹 20위안에 박서준 출연 드라마가 무려 5편이나 올랐다. 이날 기준 ‘화랑’이 1,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마녀의 연애’, ‘그녀는 예뻐다’, ‘쌈, 마이웨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까지 순위에 올랐다. 박서준은 지난해 JTBC ‘이태원 클라쓰’가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과 나란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조명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가 발표한 ‘2020 종합 TOP(톱)10’에 따르면 ‘이태원 클라쓰’가 2위,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기를 입증하듯 지난 5월 진행된 박서준의 데뷔 10주년 기념 언택트 팬미팅 ‘박서준, 콤마(Comma)’는 일본 KNTV에서 독점 생중계된 후 자막판이 추가 편성됐다.



/연합뉴스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